

KIA 양현종 7년 연속 10승·100K 동시 달성 도전

현재 9승·99K...3일 사직 롯데전 선발 출격 예정
2009년 12승...2014년부터 매년 두자릿 수 승리
1승만 보태면 '국보' 선동열과 146승 동률 기록

KIA 타이거즈 양현종(32)이 7년 연속 10승과 7년 연속 100탈삼진 동시 달성에 도전한다.

지난달 31일 현재 9승과 99탈삼진을 기록 중인 양현종은 앞으로 1승을 더하면 이강철(10년), 정민철, 장원준(8년), 유희관(7년)에 이어 KBO 리그 역대 5번째로 7년 연속 10승을 달성하게 된다.

탈삼진 기록도 1개만 남았다. 1개의 탈삼진만 추가하면 이강철, 장원준(10년), 정민태(8년), 선동열, 구대성, 류현진(7년)에 이어 7번째로 7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좌완투수로서는 장원준과 유희관에 이어 통산 3번째 7년 연속 10승이며, 7년 연속

100탈삼진은 장원준, 구대성, 류현진에 이은 4번째다.

동성고를 졸업한 양현종은 지난 2007년 KIA에 입단해 그해 4월 7일 잠실 LG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같은 해 9월 29일 대전 한화전에서 첫 승을 거뒀다.

팀의 선발투수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 2009년 12승으로 처음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양현종은 이후 2014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기록을 이어왔다.

양현종은 2014년 16승(8패), 2015년 15승(6패), 2016년 10승(12패), 2017년 20승(6패), 2018년 13승(11패), 2019년 16승(8패)을 거뒀다.

2017년 20승은 양현종의 한 시즌 최다승이다. 그해 다승 1위로 KIA를 우승으로 이끈 양현종은 한 시즌에 한국시리즈, 정규시즌 MVP와 함께 골든글러브까지 동시에 석권하는 KBO 최초의 선수가 됐다.

첫 탈삼진은 2007년 4월 12일 무등 현대전에서 기록했으며, 이후 데뷔 3년 차인 2009년(139개)부터 세 자릿수 탈삼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양현종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은 2018년 7월 3일 광주 한화전에서 기록한 12탈삼진이며, 한 시즌 최다치는 2014년 기록한 165탈삼진이다.

양현종은 지난 6월 3일 광주에서 롯데를 상대로 통산 5번째 140승을 올렸으며, 8월 11일 잠실 LG전에서는 통산 5번째 1,600탈삼진을 기록한 바 있다.

양현종은 정상 로테이션대로라면 3일 사직 롯데전 등판 예정이나 태풍 예보가 있는 데다 이튿날 더블헤더 일정도 있어 일정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번 10승과 100탈삼진 연속 기록을 달성한 뒤에는 또 다른 대기록에 도전한다. 타이

거즈 프랜차이즈 최다승이다.

타이거즈 최다승은 이강철 KT 감독이 가지고 있는 150승이다. 이 감독은 통산 152승을 했는데 이중 타이거즈에서만 150승을 했다. 양현종은 앞으로 5승을 더하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승 타이 기록을, 6승을 더하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양현종이 가장 바라는 기록도 이강철 감독의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승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난 6월 통산 140승 달성 인터뷰에서 양현종은 "기록이 바로 앞에 있고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반드시 타이거즈 최다승 기록을 바꾸고 싶다"면서 "이강철 감독님의 기록에 다가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멀티골' 광주FC 펠리페 K리그1 18R 'MVP'

윌리안·아솔마토프도 베스트11...광주 베스트팀 선정

지난달 30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 골폭죽을 터트린 광주FC가 K리그1 18라운드 타이틀을 싹쓸이했다.

광주FC 외국인 3인방 펠리페와 윌리안, 아솔마토프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8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된 가운데 펠리페는 MVP까지 차지했다. 광주와 대구 경기는 베스트매치, 광주는 베스트팀으로 선정됐다.

펠리페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광주의 6-4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펠리페는 전반 23분 염원상이 얻어낸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서 팀의 동점골을 넣었다. 이후 펠리페는 후반 17분 윌리안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 지역에서 원발 슈팅으로 다시 한번 골을 터뜨렸다.



대구와 광주의 경기는 18라운드 베스트 매치에도 선정됐다. 이날 양 팀이 기록한 합계

10골은 K리그 통산 1경기 최다 골 기록 타이틀에 해당한다.

6골을 기록한 광주는 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18라운드 베스트 11은 펠리페, 김지현(강원), 일류첸코(포항·이상 FW), 윌리안, 김민우(수원), 문선민(상주), 이정용(울산·이상 MF), 권경원(상주), 아솔마토프, 김기희(울산·이상 DF), 양형모(수원·GK)가 선정됐다.

프로야구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결과 1군 경기 정상 진행

한화 이글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충격에서 벗어난 프로야구가 1일 예정된 5경기를 모두 정상 개최했다.

KBO는 지난달 31일 한화 재활군 선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퓨처스리그를 잠정 중단하고 긴급히 접촉 선수 및 구단 직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확진 선수는 지난달 30일 늦은 오후부터 발열이 시작했다. 25일 이후 2군에 있었던 선수 중 1군에 콜업된 한화 선수 2명과 이들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선수 2명이 1일 오전 2시경 KBO가 긴급 지정한 KBO 협력 병원인 희명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고 1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화는 서산 훈련장에 거주하는 선수와 직원 40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1일 KBO리그 경기 여부는 미정이었으나 KBO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예정됐던 5경기 모두 정상 개최를 결정했다.

KBO 사무국과 한화 구단은 확진자 발생 후 신속히 대상자를 분류해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기를 치러도 좋다고 OK 사인을 줬다.

/최진화 기자

'4전 5기' 권순우 메이저 단식 첫승

권순우(73위·CJ후원)가 한국 남자 선수로는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승리를 따냈다.

당진시청 소속 권순우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340만 2,000달러) 첫날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이-손 크비아트코스키(187위·미국)에게 3-1(3-6 7-6(7-4) 6-1 6-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권순우는 이형택(은퇴)과 정현(144위·제네시스 후원)에 이어 한국 남자 선수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2회전에 오른 선수가 됐다.

이형택은 2000년 US오픈, 정현은 2015년 US오픈에서 각각 메이저 단식 본선 첫 승을 거뒀으며 권순우 역시 US오픈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이덕희, 박성희, 조운정 등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이긴 경력이 있다.

권순우는 2회전인 64강전에서 테니스 사포 발로프(17위·캐나다)를 상대한다. 이 경기는 이틀 뒤인 3일에 열릴 예정이다.

권순우는 1세트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상대에게 내주며 0-3으로 끌려갔고, 결국 세트 초반에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도 게임스코어 4-4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뺏긴 권순우는 2세트까지 내줄 위기에 몰렸다.

특히 이때까지 상대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도 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진 크비아트코스키의 서브 게임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때 상대 서브 게임을 처음으로 브레이크. 경기 분위기를 바꾼 권순우는 결국 세트스코어 1-1을 만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권순우가 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단식 1회전에서 힘차게 공을 리턴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US오픈 테니스대회 64강 진출...상금 10만 달러 확보

한국 남자 선수 통산 세번째 메이저 단식 본선 2회전

2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먼저 자신의 서브 때 한 점을 내줬으나 곧바로 상대 더블 폴트로 한숨을 돌렸고, 이후 내리 3득점 하며 4-1까지 앞서나갔다.

다잡은 듯했던 2세트를 놓친 크비아트코스키는 3세트 이후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고, 권순우는 3, 4세트에서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2시간 49분 만에 2회전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권순우는 서브 에이스에서 3-11로 열

세였지만 공격 성공 횟수에서 50-33으로 우위를 보이며 3세트 이후 경기를 주도했다.

권순우는 2018년 호주오픈에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데뷔전을 치렀고, 이후 2019년 웨블턴과 US오픈, 올해 호주오픈까지 네 차례 도전에서 모두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1회전을 통과한 권순우는 단식 본선 2회전 상금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를 확보했다.

'4전 5기'에 성공한 권순우의 다음 상대 사포발로프는 권순우보다 2살 어린 1999년생이지만 이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도 한 차례 있고, 개인 최고 랭킹이 올해 1월 139위인 톱 랭커다.

원순잡이 사포발로프는 2017년 US오픈 16강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이날 앞서 열린 1회전에서 서메스턴 코르다(205위·미국)를 3-1(6-4 4-6 6-3 6-2)로 물리쳤다.

권순우는 "초반에 너무 긴장해서 생각한 플레이를 못 했지만 2세트 위기에서 브레이크를 하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며 "2회전 상대는 랭킹이 높은 선수지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재미있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류현진 시즌 3승 도전

내일 마이애미 상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하루 차이를 두고 선발 출격한다.

김광현은 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7시 40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신시내티 레드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고, 류현진은 3일 오전 7시 40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원정 경기에서 출격한다.

두 선수의 소속팀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등판 일정을 공개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은 지난달 18일과 23일 동안 등판했다.

그러나 토론토 선수단이 인종차별에 항의해 류현진이 등판할 예정이었던 28일 경기가 하루 늦춰지면서 두 선수의 등판 일정이 하루 어긋나게 됐다.

류현진의 9월 첫 상대는 마이애미다. 마이애미는 1일까지 15승 15패를 기록했고, 팀 타율은 0.237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1위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